

청소년디딤센터 유치전 '후끈'

익산시, 오택립 시장 권한대행·전북도 각 기관·단체 일레이 참여… 익산 유치 염원

익산시가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전에 적극 나서면서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라북도 청소년정책 네트워크 주최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이산 유치를 위한 챌린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를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문구와 사진들을 올리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과 도·시의원, 전북도청, 전북도 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 시민단체, 청소년 등이 릴레이로 참여하면서 익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국립 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립 거주형 치유재활시설로 경기도 용인과 대구광역시에 개관해 운영 중이다.

시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호남권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호남권뿐 아니라 세종·충청권

나아가 제주도까지 이우를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풍부한 자연환경과 원예, 농업, 한방, 승마 치유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

오택립 시장 권한대행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호남권 국립 청소년디딤센터가 꼭 익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담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길제 미늘 밟 110억 돈다발 사건을 해결한 문대봉 전 익산경찰서 형사과장 등 경찰관과 시민 300여 명은 14일 모현동 조용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식을 가졌다.

"자치경찰제 실시 따른 제일 적합한 후보"

익산시민 300여명·전직 경찰관, 조용식 예비후보 지지 선언

전직 경찰관과 시민 300여 명이 조용식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제 미늘 밟 110억 돈다발 사건을 해결한 문대봉 전 익산경찰서 형사과장 등 경찰관과 시민 300여 명은 14일 모현동 조용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식을 가졌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익산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지지도가 풀등이라는 불평과 나후된 도시라는 이미지로 익산시민의 자존감은 타 도시 사람보다 낮아진 상태"라며 "특히 아파트 분양가가 1천만 원대를 훌쩍 넘어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조 예비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익산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 적다 보니 청년의 미래가 없는 죽어가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며 "꽉 막은 중앙 인맥으로 익산시 발전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제일 적합한 후보"라며 "민생 안전 도시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익산을 만들어 줄 적임자라고 자부한다"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후원회 회장을 승쾌히 허락하며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익산시민과 함께 꼭 승리하여 민주당의 근본을 살리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익산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청년들의 교류와 참여에 도움"

익산시, 청년 공동체 활성화 '동아리' 지원

익산시는 지역 청소년들이 교류하며 사회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청년들의 참여성이 담긴 다양한 아이디어 실행을 지원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은 자발적 인 청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청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율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15개 동아리를 선정해 동아리당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활동 분야는 문화예술, 진로탐색, 생태환경 등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단순 친목 도모 동아리, 정치·영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일회성 행사·교육·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익산청년센터 청춘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벚꽃도 꽝꽝, 선물도 꽝꽝, 함께하면 터진다

군산 배달의명수, '5월 가정의 달' 맞아 봄맞이 고객 이벤트 추진

군산시는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벚꽃 개화 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봄맞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8일부터 추진되는 배달의명수 SNS 이벤트는 배달의명수 배달앱을 이용한 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주문 내역을 인증하고 팔로우하면 참여 600명에게 배달의명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권 할인쿠폰을 지금 한다.

또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가정의달 이벤트는 행시기간 동안 배달의명수 앱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주첨행사에 응모되어, 추첨을 통해 총 634명에게 게임기(닌텐도 스위치), 암마기(코자마비 풋+트위스터 풀세트), 한우세트, 5천원권 할인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군산시는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벚꽃 개화 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봄맞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봄맞이 고객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고객센

터(1899-8103), 군산시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녹색 쉼 공간 원광대 자연식물원·아가페 정원 개방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자연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장이 금지됐던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과 아가페 정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은 신동 272

번지 일원(10만2,540㎡)에 자리나무, 풀라티나스 등 나무류 1,251종과 맷문동, 비비추 등 초화류 587종이 식재돼 있다.

식물원은 지난 6일부터 재개방해 시

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가페 정원은 홍등면 율촌리 185-8 번지 일원(5만1,056㎡)에 노인복지시설인 아가페 정양원과 함께 만들어진 정원이다.

지난해 민간정원으로 등록하고 시가 익산신립조합, (사)푸른익산기구기문 등본부와 함께 시민 휴식공간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2일부터 재개방했다.

시는 원광대 자연식물원과 아가페

정원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환경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 휴식공간에서 삶의 힐링소리를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하며 아가페 정원은 입소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진행 등 자체 운영을 위해 매주 월요일은 입장이 제한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